

올해도 유상증자 기업 늘까... 경기침체에 투자자 우려 커져

고금리·경기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 운영자금·부채상환 목적 사례 늘어 영업익 전망, 3개월 전비 23.3兆↓ 기업, 성장 가능성 청사진 제시해야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인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상장사는 총 502개사로 전년(470개사) 대비 32개사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77개사로 전년(78개사)과 비슷했으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본금은 1조9486억원에서 2조2757억원으로 3271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425개사로 전년(396개사) 대비 29개사 증가했으며, 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주가 하락 이미지.

본금도 전년보다 43.26% 증가한 1조3035억원에 달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

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된다. 특히 최근 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운영자금 마련과 부채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수만 늘어나면 주당순이익(EPS)이 감소,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 실패의 책임을 주주의 자금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에이트는 17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조달 자금 중 70억원을 전환사채(CB) 상환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반도체 기반 제조사 이수페타시스는 2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 인수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바이오기업 차바이오텍도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최대 주주가 배정 물

량의 약 40%만 소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는 286조118억원으로, 3개월 전 309조3710억원에서 약 23조3592억원 줄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와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 자금줄이 타이트해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누적된 적자와 고갈된 자금 속에서 이뤄지는 유상증자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어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조선株,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쾌속'

삼성重, 올해 들어 18.14% 올라 전 세계에서 FLNG 경쟁력 돋보여 한화엔진 등 조선·엔진株 신고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오르면서 조선주를 비롯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18.14% 올랐다.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2.69% 오른 1만3350원에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했다. 전날에도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한화엔진, 한화오션, HD현대마린엔진, HD한국조선해양, STX엔진 등 조선·엔진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LNG 투자, 생산 확대가 전망되면서 목표주가가 올랐다"며 "한화엔진, HD현대마린엔진, 한국조선해양 등 다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6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소폭 하락했다.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주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며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언급된 동맹국이 한국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전세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에서 돋보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모멘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의 FLNG 건조 트랙레코드와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중공업의 차별성은 올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주 강세에 따라 관련 ETF도 오름

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1월 9~15일)간 'SOL 조선TOP3플러스'는 17.31% 상승했다. 국내에 상장한 조선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외에도 'KODE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가 15.14%, 'TIGER 조선TOP10' 14.76%, 'HANARO Fn조선해운' 14.32% 등이 모두 올랐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상장한 PLUS 한화그룹주 ETF도 상승 흐름에 탑승했다. 해당 ETF는 12개 한화그룹 계열사로 구성됐는데 ▲한화오션·한화엔진(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방산) ▲한화투자증권(비트코인)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금융) 등 '트럼프 수혜주'들이 다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지난해 국내시장이 글로벌 주시 대비 과도하게 부진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 섹터는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상승행렬이 지속됐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발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내 조선업에 중요한 기회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25년에도 조선이 국내 증시의 주요 섹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현대차證 "2028년까지 배당성향 40% 달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현대차증권이 향후 3년간 배당성향 30% 이상 보장, 2028년 배당성향 40% 이상·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 등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증권은 1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재무 안정성 및 자본 효율성을 기반으로 안정 수익을 창출하

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업계 최고의 '고객 및 주주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배당성향은 2028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연결기준 배당성향보다 13% 높은 수준이다. 또 2025년부터 3년간 연결기준 배당성향 30%~35% 수준을 유지하고, 배당성향 하한도 30%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기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잔량 약 704만주를 올해 5월 전량 상환한 후 소각할 예정이다. 총 775억원 규모이며, 소각 이후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자구 노력을 통해 매년 ROE를 높이며 2028년까지 ROE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차증권의 PBR은 0.22배로, 증권업종 특성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여의도 역사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메리츠증권 수수료 이벤트 옥외광고.

/허정윤 기자

증권사, 수수료 우대로 신규고객 유치 박차

삼성증권,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 미래에셋증권, 수수료 '0원' 행사 메리츠증권 'Super365' 눈길

연초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는 등 올해 국내와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산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저렴한 수수료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투자자에게는 지난해 12월 24일 50조 6265억원에서 지난 15일 52조 78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2조 원 더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증시 대기자금의 증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움직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대감 고조,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국면 진입 평가 등이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자금 유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첫 투자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며 대상은 기간 중 비대면 종합계좌를 개설한 신규·휴면 고객이다. 고객은 계좌개설일로부터 92일 동안 0.0036396%의 수수료만 내고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0.0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고객에 한해 90일간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에 대해 온라인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연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비대면계좌로 신규개좌를 트거나 휴면계좌를 켜 고객에게 6개월 동안 0.

0036396%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최초 신규 고객에게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우대(0.0036396%) 전략을 펼치며 동시에 '주식 1주'(코스피 200 기업 중 한 종목)를 증정한다.

이런 수수료 우대 이벤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와중에 단연 돋보이는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은 'Super365'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 확장에 성공했다.

'Super365'는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투자 계좌로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과 달러 환전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수수료 이벤트 중 가장 파격적이고 긴 기간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신규 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제 비용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이목을 끌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평균으로는 약 1500개의 계좌, 460억원의 자산이 늘며 자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액수도 이벤트 시행 전과 비교해 약 50배 급증했으며, 신규 고객 이다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Super365' 예약자산 추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수료 이벤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8일 전에는 9355억원가량이었던 예약자산은 11월 말 1조2903억원, 12월 말 2조9425억원, 1월 2일 3조446억원을 기록하며 3조 원대를 돌파했고 이달 14일에는 3조6700억원을 넘어서며 4조 원대를 노리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